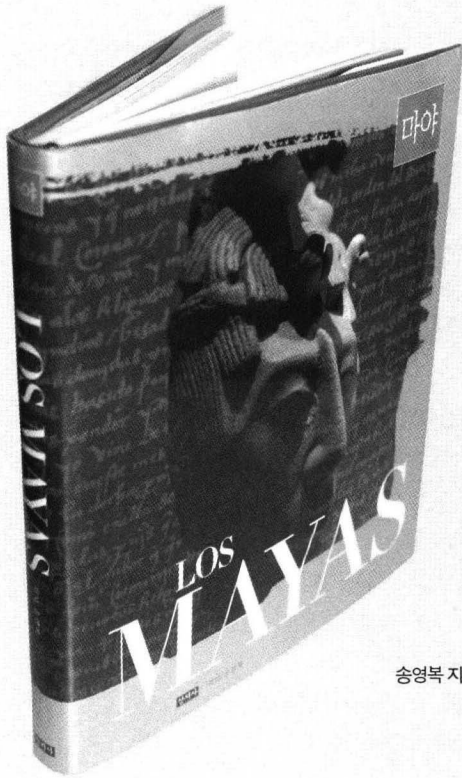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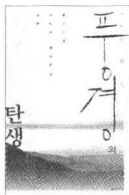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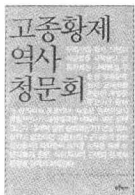
마야문명의 시원始原에 관한 장중한 물음



《마야》
송영복 지음 | 삼지사 | 336쪽 |
값 68,000원

사람의 세 치 속뿐 아니라, 사물과 일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는 것 또한 녹록치 않다. 자칫 세상사의 생김새를 주저없이 명쾌하게 뜻 매김하는 것은 오만한 지적 나르시시즘일 수도 있다. 바로보고, 뒤 집어보고, 앞에서 또는 뒤에서 계량해 보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삶에 대한 애착 아닐까. 정형화된 인식의 허실을 버선목 뒤집듯 헤아려보고, 숭배하며 집착해 온 규범적 사실의 의미를 캐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음이 아닐 터. 그것이 사상과 경향에 대한 치열한 질문이건, 역사와 인물의 프로파일 재구축이건, 무심한 일상의 조각들을 새삼 도마 위에 얹어보는 일이건 관계치 않다. 책읽는 행위의 의미가 그런 데 있다면, 이달의 <출판저널> 서가 역시 그것에 부족함없는 물음과 답으로 넘쳐나는 공간이었다.

모든 명분과 명제는 의미 있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나 할까. 6월, 이달의 양서를 고름에 있어 <출판저널> 기자들은 지난간 율유년의 절반을 갈음할 지적 '버전' 을 되물었다. 김정형의 《역사속의 인물》, 교수신문이 펴낸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영미 문학연구회의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송영복의 《마야》, 권지예의 《꽃계 무덤》, 장석주의 《풍경의 탄생》, 김윤식의 《비도 눈도 내리지 않는 시나가와역》, 송시열·이인상 외 공저 《빈 방에 달빛 들면》, 이옥수의 《내사랑 사복》, 김충희의 《아빠, 가려워》, 우석훈의 《음식국부론》, 이용환의 《옛집 기행》 등이 그런 물음 끝에 선별된 책들이다. 그 중 제각기 지닌 의미가 남다른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아빠, 가려워》, 《마야》가 '이달의 책' 을 겨루는 데



이달의 책 후보 도서

《역사속의 오늘》김정형 지음 | 생각의나무 | 390쪽 | 값 14,500원

1000년 전 오늘은 무슨 일이? 1년 365일 역사달력을 통해 그날 일어난 국내외 사건과 사고의 배경과 의미를 사진 자료와 함께 서술한 책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분야에 걸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과 사실을 마치 실시간인양 그려내고 있다. 리얼리티가 가미된 달력 형태의 기록을 통해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게 하는 책이다.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이태진 외 10인 지음 | 교수신문 엮음 | 푸른역사 | 268쪽 | 값 13,000원

고종은 개명군주이자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인가, 아니면 성리학적 도덕률에 충실한 무능한 군주일 뿐인가.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와 이를 반박한 전남대 김재호 교수를 비롯한 9명의 학계 인사들이 <교수신문>에서 6개월여 동안 벌인 대논쟁이 실려 있다. 고종과 한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책이다.

《꽃계 무덤》권지예 지음 | 문학동네 | 326쪽 | 값 9,500원

권지예의 9개 단편이 실려 있는 소설집. 마치 꽃계무덤마냥 텅 빈 자리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여자를 잊지 못하는 표제작 <꽃계 무덤>을 비롯, 저자 특유의 다채롭고 감칠맛 나는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책이다. 구성과 전개가 매끄럽고 문체도 정갈한 이 소설집은 독자들에게 충분한 '재미' 도 선사하면서 문학적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다.

《풍경의 탄생》장석주 지음 | 인디북 | 516쪽 | 값 25,000원

장석주 시인의 여섯 번째 평론집. 책은 '이미지' 를 통해 김소월부터 20세기 말의 송찬호에 이르는 시세계를 아우르는 한편,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열고 있는 젊은 소설가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표출한 공간이나 시간, 동·식물 등과 같은 이미지들의 의미를 다양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이불에 올랐다.

올바른 번역은 훌륭한 창조행위에 다름 아니다.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는 번역 풍토와 실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란 점에서 눈에 띄었다. 이 책은 한국의 영미문학의 번역 현실을 점검하고 신뢰할 만한 번역본을 선별코자 기획된 것이다. 영미문학연구회 소속 연구자 44명이 1년 반에 걸친 공동작업 끝에 완성한 연구보고서를 독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현재는 좋은 번역이 나온다고 해도 난립한 동종 번역물들 사이에 파묻혀 버리고 말 위험이 크다는 게 저자들의 인식이다.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아토피라 했다. 온갖 진단과 처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는 웬만해선 치유하기 힘든 병이다. 혹자는 인스턴트 식품의 만연과 자연친화적 섭생과는 상치된 가공식품의 범람을 그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아빠, 가려워!》에서 저자는 아토피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알기 쉽고도 감동이 서린 만화로 그려내 독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경희대 교수 송영복의 《마야》는 적어도 저술의 공력만으론 비할데 없는 ‘압권’이다. 훌륭한 장정은 물론, 마야문명의 모든 것에 관한 살뜰하고 섬세한 관찰, 전문가 수준의 현장 사진이 읽는 이를 압도한다. 오랜 현지 생활과 학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지어낸 역작이다. 한가지 물어보직은 하다. 하필이면 ‘마야’에 그렇게 집착하니? “한국인의 시각으로 마야문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답이다. 하지만 좀더 속깊은 뜻이 있다.

“실용과 활용에만 치우친, 기초학문이 빈약한 우리의 학문적 환경에 ‘고대 마야’에 관한 심중한 연구로 색다른 의미를 던지고 싶었다”는 게 그의 솔직한 표현이다. 책은 그런 ‘의미’를 새기는 데 딱 들어맞는 요철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 마야 역사와 문화 전반에 관한 텍스트는 라틴아메리카의 기원에 관한 탐구이자, 옥시덴털리즘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기도 하다.

3113년 8월 13일. 자못 생경스럽고 장엄한 마야 역사의 시원^{始原}처럼 《마야》의 텍스트 하나 하나는 낯설면서, 서사적 감동마저 물씬한 학문적 성과물이다. 《마야와 메소아메리카》, 《꾸즈메엘의 정치경제》, 《편두에서 꼬염까지》, 《신들의 전쟁》, 《20진법의 세계》에서 드러난 셈법과 달력, 문자는 경이 그 자체다. 《흙과 돌의 미학》, 《밀립 속의 피라미드》, 《역사의 빨레오 그래피아》에서 보여준 그들만의 건축양식과 피라미드, 도시 등은 수천 년을 거스른 여행 끝에 쟁취한 값, 그것이다. 저자는 찬란했던 문명을 단숨에 결판낸 원인은 물음표로 남겨두되, 마야인을 도륙한 ‘침승 같은 백인’은 고문헌의 덮개를 벗겨 만천하에 드러낸다.

그러나 정작 《마야》를 보고 놀라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다. 한국인이 마야의 실체를 정색하며 연구하고, 사진을 찍고, 장중한 책으로 엮은 점이다. 태초 이래 처음이라 할 이같은 시도야말로 어찌하면 이 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까닭이리라. 중후한 저작행위이다. 그런 노고가 가산점을 얻어 기자들은 이를 ‘이달의 책’으로 꼽는 데 별 망설임이 없었다. **한글**



《비도 눈도 내리지 않는 시니가와역》 김윤식 지음 | 솔 | 288쪽 | 값 10,000원
2004년 일본 도쿄를 방문, 대표적 이론가 비평가들에 대해 설명·분석한 일곱 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한일 양국 문화의 어울림과 비틀림을 저자 나름대로 해석해낸 문화담론이기도 하다. 시니가와역, 간다서점가, 국립서양미술관, 일본민예관, 고바야시 히데오의 무덤 등지에서 입화 와 나카노 시게하루를 연상하는 등 독특한 양식의 문화적 성찰과 기행이 돋보인다.

《빈 방에 달빛 들면》 송시열·이인상 외 공저 | 유미림 외 옮김 | 학고재 | 288쪽 | 값 12,000원
사랑하는 이를 영영 떠나보내는 아픔은 동서고금의 공통된 정서인가. 조선 선비들이 아내와 사별하며 지은 제문祭文 49편을 엮은 이 책은 유교문화에 찌든 것으로 비친 조선 사회에 대해 색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 책의 내용은 제문이라기보다 편지글에 가깝다. 아내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간곡하게 담아냄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뭉클한 감동을 맛보게 한다.

《내 사랑, 사복》 이옥수 지음 | 사계절 | 202쪽 | 값 7,500원
80년 4월 일어난 강원도 사복 탄광촌의 민중봉기인 ‘사복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노사분규 형식으로 발화된 당시 사태의 와중에서 한 소녀가 겪은 20일 동안의 일을 리얼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갓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소녀가 갖는 짝사랑의 달콤함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현실과 교차되면서 한층 절박한 색조로 다가온다.

《아빠, 가려워!》 김충희 지음 | 청년사 | 292쪽 | 값 9,800원
‘알 수 없는 병’이란 말처럼 그야말로 온갖 진단과 처방을 동원해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게 아토피다. 책은 늘 ‘가려워!’를 외치는 아이를 둘러싼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만화로 그려내고 있다. 만화로 그려진 만큼 읽기에도 좋다. 밤만 되면 보채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아토피 자녀를 둔 모든 독자들의 공감을 살 만하다.

《음식국부론》 우석훈 지음 | 생각의나무 | 240쪽 | 값 12,000원
올바른 섭생은 육체 건강뿐 아니라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다. 책은 식재료의 생산·유통·판매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폭넓게 보여주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자연친화적 섭생과 화학첨가물이나 조미료 안먹기, 생협 등을 통한 식생활 개선 등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별 아토피 아동의 현황과 원인, 도움받을 만한 생협 지부 연락처를 상세히 안내한 부록이 있어 좋다.

《옛집 기행》 이몽한 지음 | 심병우·이몽한 사진 | 웅진닷컴 | 280쪽 | 값 17,000원
직접 전국을 발로 뛰어 다니며 초기와 너외집을 탐방, 취제한 결과물을 엮어낸 책이다. 물론도 투박집에서 전남의 외딴 도초도 초기집, 오대산의 너외집, 제주도 띠집등을 섭렵하며, 모두 300여 컷의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여 펴낸 우리문화기행사다. 또 옛집의 건축학적 구조와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 자연과의 어울림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